

FTA FOCUS

2020년도 관세청 FTA행정 운영방향

성태곤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성태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2020년도 관세청 FTA행정 운영방향

I. 들어가며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은 1월 1일 오전,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2020 뉴 이어스 로킹 이브(New Year's Rockin' Eve) 공연이 펼쳐졌다. 미국에서 가장 큰 신년 행사다. 타임스퀘어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한국어 떼창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카운트다운하는 모습에는 새해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연초의 미국 경제 상황은 역대급이다. 증시는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고,

소비가 늘며 실업률은 50년 만에 최저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미국과 달리 그리 좋지 않아 보인다. 얼마 전 한국은행이 내놓은 올해 경제 성장률은 2.3%로 사실상 정체 수준이다. 1월 말로 단행된 '브렉시트', 4월 총선과 미 대통령 선거까지 우리 경제를 뒤흔들 변수도 적지 않아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한편에서는 경기 순환 주기에 비추어 이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시점이 되었다는 희망찬 기사도 보인다. 이래저래 새해 우리나라 경제 전망은 희망과 불안이 교차한다.

II. 2019년도 주요 성과 및 평가

그간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수출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관세청은 2019년 연초부터 ‘중소 수출기업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수출기업 지원에 관세행정 역량을 모았다. 기업 입장에서 일련의 수출 과정 중 관세행정이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라는 점을 착안해 관세행정 뿐만 아니라 수출 관련 모든 업무를 One-Stop 지원하도록 기반을 구축했다. 전국 30여개의 지자체, 수출지원기관과 ‘수출기업 합동지원단’을 구성하고 약 1,800여개 기업을 지원했다.

그 결과 전체 중소기업의 수출이 6.1% 감소한 가운데 관세청 지원 기업의 수출은 오히려 2.5% 증가했다. 미중 통상 마찰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기업의 수출이 2018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것을 고려한다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선전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지원도 한몫했을 것이다.

지난해 원산지 검증 행정은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다.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오류에 대한 보완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성실신고 확대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 기업들이 FTA 활용을 하면서도 떨칠 수 없었던 검증 불안감을 상당 부분 해소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으로 ‘원산지기준 불충족’ 등 보다 실질적인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여 2019년 연초 전체 검증건의 40%에 불과했던 ‘실질요건 검증 추정비율’은 연말에는 85%까지 늘어났다.

상대국 세관당국과 가까운 관계를 맺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상대국에서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는 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와의 통상 마찰이 해소되는 등 2018년 314건에 달하던 FTA 통관애로 건수가 2019년에는 18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Ⅲ. 2020년도 FTA 관세행정 추진방향

2020년 관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 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FTA 이행 전반을 정비해 업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RCEP) 체결로 다가온 MEGA FTA 시대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FTA 관세행정 접목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이를 위한 2020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다.

1. 경제 살리기를 위한 중소기업 수출 총력 지원
2. 이행체계의 내실화로 FTA 기본질서 확립
3. MEGA FTA 등 新FTA 시대로의 전환 준비
4. 통상 리스크 증대에 대응하는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5. D.N.A.(Data, Network, AI)를 활용한 FTA 관세행정 고도화

1. 경제 살리기를 위한 중소기업 수출 총력 지원

FTA 컨설팅 사업은 지원대상을 ‘최초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유망 수출기업까지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등 新성장 산업으로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또한 수출지원 유관기관의 기업지원 정보와 관세청 자체 정보를 상호 연계·분석하고 기업지원 DB를 구축하여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하거나 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사업을 찾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기업이 FTA를 활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할 것이다. 예컨대 국내산 물품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자유무역지역(FTZ)에 반입된 국내물품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할 예정이다. FTA 관세행정 제도 전반에 이런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찾아 고쳐나가겠다.

FTA-PASS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위해 관세청이 개발해 무상으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 시스템이다. 그간 수출신고 정보를 활용해 자동으로 신청 양식을 채워주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사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했다. 그 결과 <국가브랜드대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관세청을 통해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비중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관세청과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전체 발급 건수 중 관세청 발급 비중은 2010년 15%에 불과했으나, 2015년 22%, 지난해에는 31%까지 늘어났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과정을 더욱 편리하게 해 관세청 발급 비중이 계속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 이행체계의 내실화로 FTA 기본질서 확립

최근 한 신문 사설에서 시장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정부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다. FTA 관세행정의 기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기업이 FTA 특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FTA 부정특혜를 받는 기업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원산지를 속여 부당하게 FTA 특혜를 받아도 처벌받지 않으면 FTA 관세행정의 기본이 무너진다. 특히 FTA로 인한 국내 피해산업, 국민건강 관련 물품, 의도적인 우회 수입물품 등은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형식적 요건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지양하고 기업이 성실하게 신고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자율점검 단계에서 보정 신고 시 가산세 면제 인정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특별한 귀책사유가 수입자에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충실히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기업에게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연장 심사 과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3. MEGA FTA 등 新FTA 시대로의 전환 준비

2019.11.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체결되었다. 중국과 일본, 아세안 및 대양주 등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다. 16개국에 대해 통합 원산지 기준을 설정하여 원산지 증명에 소요되는 거래비용 절감이 기대되며,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도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역내 가치사슬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와 CEPA도 타결되어 철강제품(5~15%), 자동차 및 부품(5%), 합성수지(5%)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를 이루어냈다. 협정들이 발효되기 전까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정문을 분석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체약 상대국과 협력해 新FTA 시대에 대비해 나가겠다.

RCEP 체결은 특히 그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제외되었던 일본이 상대국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기존의 FTA와 RCEP을 연계해 對일본 FTA 활용 모델을 만들고, 일본의 비관세장벽을 분석하는 등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RCEP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화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한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나중에 좋은 일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전체 수출은 감소했지만,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낮아진 것은 긍정적 측면이다. 對중국 수출이

2018년 26.8%에서 2019년 24.8%로 감소했고, 싱가포르, 베트남 등 新남방 지역으로의 수출이 같은 기간 19.1%에서 20.5%까지 늘어났다. RCEP이 체결되고 한-인니 CEPA가 타결되고 현재 한-말련, 한-필리핀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시의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新남방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와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EODES)을 新남방국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인도, 베트남과는 2020년 내 전면 시행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EODES가 구축되면 상대국 내 FTA 특혜 수입에 소요되는 물류 비용과 통관애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4. 통상 리스크 증대에 대응하는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관세법은 태생적으로 국제간의 통일 규정에 대한 국제 규정을 수용하는 국제법적 성격이 있다. 특히 FTA 관세행정은 체결 상대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만약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꼼꼼하게 심사하지 않는다면, 수입자는 FTA 특혜를 받지 못하거나 사후에 추징당할 수도 있다. 반대로 수입국 세관당국이 원산지 검증을 엄격하게 하면 수출국은 이를 규제로 받아들여 통상 마찰로 비화되기도 한다. 이런 저런 이유로 중국과는 FTA가 체결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원산지 검증 현지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못했다. 올해에는

중국과 현지 검증 수행 절차와 기준 등을 협의해 이를 정상화하겠다. 이 밖에도 신규 또는 기존 발효 협정 가운데 실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조항이 없는지 살피고, 세관당국 간 협의를 통해 협정 해석의 통일성을 부여해 나갈 것이다.

현재 해외에서 통관애로가 발생하면 일선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1차적으로 접수해 해결하도록 한다. 올해부터는 보다 다양한 통관애로 접수를 위해 수출입 기업이 직접 통관애로를 신고할 수 있는 공간을 FTA 포털 내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5. D.N.A.(Data, Network, AI)를 활용한 FTA 관세행정 고도화

금년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된 자재 명세서(BOM) PDF 파일 등을 D/B화 하는 등 FTA 관세행정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

이다. 이를 통해 수출 시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자동 심사,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 신청 단계부터 위험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관세청이 보유한 수출입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통계, 상대국 세관당국을 통해 입수한 통계정보 등을 교차 분석해 정부, 학계, 산업협회 등 통계

수요자들에게 다양하고 유용한 FTA 활용 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IV. 맺음말

2019년은 방탄소년단(BTS)의 해라고 할 만큼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이들의 성공 방정식을 ‘글로벌’과 ‘연결’로 보는 분석이 많다. 자신감, 고민, 사랑, 실연 등 전 세계 10대와 20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글로벌한 콘텐츠를 만들고 확산시켰다. 유튜브를 통해 BTS가 어디에서 콘텐츠를 생산하던 각국의 BTS 팬들이 ‘연결’되어 마치 한 몸처럼 감동하고 즐길 수 있었다.

FTA 관세행정도 ‘글로벌’과 ‘연결’이 나날이 중요해져 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EODES(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이다. 과거에는 서류로 발급된 증명서를 수입자에게 특송으로 보내고, 수입자는 이를 세관당국에 제출했다. 이제는 수출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시스템을 통해 수입국에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수입국 세관직원이 바로 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FTA 관세행정은 더 많은 국가들과 보다 더 밀접하게 연결될 것이므로 우리 기업들도 계속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리며 관세청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FTA TRADE REPORT

